

프로야구 2년만에 '더블헤더' 부활

# 4강 길목 KIA, 고행길 되나

## 선 감독 "선수층 얇아 불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6일 올 시즌 잔여경기의 시행 세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취소된 52경기와 미편성된 경기 등에 대해 지난 8월17일 잔여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으나 태풍과 비로 취소 경기가 추가되면서 시행 세칙이 다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더블헤더도 시행될 예정이다. 11일 이후 경기가 취소될 경우 예비일 편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비일이 없을 경우에는 더블헤더를 다음날 편성한다. 다음날 더블헤더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동일 대전의 경기를 더블헤더로 변경하고, 이마저도 치러지지 못하며 추후 편성하기로 했다. 더블헤더는 주 2회 이상 치를 수 있지만

팀당 주중 경기가 8경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블헤더의 첫 경기는 평일 오후 3시, 주말 및 공휴일 2시에 시작해 연장전 없이 9회까지 치러진다. 제 2경기는 1경기 종료 20분 뒤 시작한다.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KBO는 더블헤더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뤄진 경기가 많으면서 더블헤더가 불가피해졌다. 잔여경기 일정이 가장 빠듯한 KIA 입장에서는 더블헤더가 반갑지는 않다. 선동열 감독은 "선수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선수층으로는 더블헤더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1경기 같은 경우에는 9회까지 무승부로 처리하는 만큼 팬들에게도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정규리그에서 더블헤더가 열린 것은 2010

년 9월22일 두산과 SK의 잠실경기가 마지막이다. KIA는 2009년 5월17일 SK와 더블헤더를 치른 적이 있다. KBO는 2009시즌에 월요일 경기를 도입한 적이 있다. 주말 3연전에서 우선취소 경기가 발생하면 이동일인 월요일에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었지만 성급하게 도입한 제도에 문제점이 노출되자 중도에 대신 더블헤더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교롭게 발표 이를 만에 4개 구장에서 더블헤더가 열렸다. 하루에 프로야구 8경기가 동시에 펼쳐진 것이다. 2009년 열렸던 KIA와 SK의 더블헤더는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휴식 시간 20분을 제외하고 5시간 44분 만에 두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다. 양팀은 이 경기에서 1승1패를 주고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세리 병커샷

6일 충남 태안 골든베이골프장에서 열린 한화금융클래식 2012 1라운드 8번홀에서 박세리가 병커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① 덕아웃 말말말

▲우리고 똑같아 = 선동열 감독, 청소년세계야구선수권대회 대만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9회말 잘 따라가고도 승부 치기에서 쉽게 졌다면서. 선 감독은 1981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1회 대회에서 박노준, 김건우 등과 함께 출전해 초대 우승을 차지했다.

▲그날 이후로 주전이었지 = 광주일고 재학생이던 1979년 광주상고(현 동성고)와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 얘기를 하던 선동열 감독, 당시 광주상고 멤버가 좋아서 2학년이던 이순철 수석코치가 주전으로 뛰지 못했는데 9회2사에서 대타로 나와 자신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냈으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국 전통무술인 축제 한마당

광주시생활체육회 주관 9일부터 빛고을체육관등서

태권도·택견·특공무술 등 6개 종목 1500여명 참가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사진)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등재 기념 2012 전국 생활체육 전통무술 축제'가 9일 빛고을체육관 등 6곳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태권도, 택견, 국무도, 무적도, 특공무술, 합기도 등 전통무술 6개종목에 15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시상은 단체상과 개인상으로 나뉘지며 개인상에는 광주시장장과 광주시교육감상이 수여된다.

종목별 경연대회 이외에도 문화체험행사의 일환으로 각 시·도 참가선수들이 광주 5·18 추모관을 관람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



를 참배할 계획이다. 김창준 회장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된 것은 큰 경사라며 이를 기념해 전국 생활체육 전통무술 동호인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축제가 광주의 역사를 알리고, 생활체육 전통무술을 대중화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 월드컵 축구팀 세대교체 격랑 시작됐다

수비수, 윤석영·고요한·정인환·황석호 젊은피 수혈 예상

미드필더, 기성용·구자철·김보경·이청용 이미 주전 꺾자

공격수, 이동국·박주영·이근호 외엔 특출한 재목감 없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에 세대교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원정 3차전을 위해 타슈켄트에 차린 대표팀 캠프인 미란 인터내셔널 호텔에는 소집된 국가대표 22명이 6일까지 모두 집결했다. 최강희 대표팀 감독은 월드컵 최종예선은 본선 진출이 목표이지만 본선에서 선전할 전열을 다듬는 수단으로서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젊은 선수들을 성인 대표팀에 계속 불러들일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져 본선을 대비하게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런던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신예가 2014년까지 경험을 쌓아 월드컵 본선까지 활약을 이어갈 것이라는 신념의 표현이다.

신예들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량 차가 거의 없어 백업요원이자보다 강력한 경쟁자로 볼 수 있다.

좌우 수비수 박주영(25·바셀), 오범석(28·수원)은 각각 윤석영(22·전남), 고요한(24·서울)과 선발 출전을 두고 다툰다.

윤석영은 성인 대표팀에 처음으로 선발됐고 고요한은 세 번째 A매치 출전을 노리고 있다. 베테랑 중앙 수비수 곽태휘(31·울산)와 이정수(32·알사드)의 뒤에는 정인환

(26·인천)과 황석호(23·히로시마 산프레체)가 도사리고 있다.

다만 미드필더진은 이미 젊은 선수들이 주전 자리를 굳힌 형국이다.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23·스완지시티), 구자철(23·아우크스부르크), 측면 미드필더 김보경(23·카디프시티), 이청용(24·볼턴)은 이미 베테랑급이다. 기성용, 김보경, 이청용은 월드컵 본선도 경험했다. 중앙 미드필더 윤빛가람(22·성남)도 13차례나 성인 대표팀에 선발됐다.

그러나 박종우(23·부산)는 A대표팀이 처음이고 이승기(24·광주)는 이번이 네 번째로 경험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동국(33·전북), 박주영(27·셀타 비고), 이근호(27·울산) 등과 겨룰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신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강희 감독은 "선발된 선수들의 기량 차가 크지 않아 앞으로 포지션 경쟁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밝혀 최종예선 내내 시험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